



판결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상대방이 집행을 막겠다고 나선 소송, 반환받을 권리도 함께 청구하다.

반소 1억 5,086만 원 인용

반소 인용

청구이의에 대응하며 부당이득 반환 반소 진행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본소) 청구이의
		(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송달장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율

변 론 종 결 2019. 11. 21.

판 결 선 고 2019. 12. 1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19. 3. 25.자 2019 지급



- 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 부터 2019. 12. 31.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 사건 반소 중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0,860,831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5. 이 법원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12. 12. 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한다.
6.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7. 제4,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01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의뢰인은 기존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 문제를 놓고 상대방 회사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그 소송에 대응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도 제기했습니다.

기존 지급명령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와 별도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금액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는 일과 자신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일이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02 결과를 가른 쟁점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기존 지급명령에 의한 집행은 일정 금액 및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허용되지 않았지만, 반소에서는 별도의 금전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기존 지급명령의 집행 범위는 제한되었지만, 반소에서는 별도의 반환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중요한 성과는 반소를 통해 150,860,831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대응의 핵심

기존 지급명령의 집행 범위와 별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구분했습니다.

당신이 키운 사업입니다. 분쟁 앞에서 쉽게 내주지 마십시오.

강제집행을 다투는 소송에 대응한 의뢰인. 해율은 반소로 약 1억 5,086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회사 간 거래가 청구이의 소송으로 번졌다면?
- 상대 회사에 돌려받을 돈도 남아 있다면?
- 지급명령과 반소가 함께 얹힌 분쟁이라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03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피고이자 반소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기한 청구이의에 응소하는 동시에, 의뢰인에게 반환되어야 할 금액을 반소의 형태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미 지급명령이 존재하는 부분과 별도 청구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기존 권리의 집행 범위와 추가 지급 청구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나누어 살피는 것이 필요한 구조였습니다.

04 판결 결과와 의미

반소에서 **150,860,831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이 인정되었습니다. 본소와 반소를 합친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90%, 의뢰인이 10%를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기존 지급명령과 겹치는 일부 반소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반환 권리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집행을 둘러싼 쟁점과 반소 청구를 구분하여 의미 있는 금전 지급 판결을 확보한 결과입니다.

결과의 핵심

강제집행을 다투는 소송에 대응한 의뢰인. 해율은 반소로 약 1억 5,086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율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강제집행을 다투는 소송에 대응한 의뢰인. 해율은 반소로 약 1억 5,086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기업 채권의 집행 범위를 다시 다투어야 한다면?
- 방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금전 문제가 있다면?
- 상대 회사의 반환 의무를 함께 청구하고 싶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